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도와주세요

소아암 환자 찬우돕기 나눔의 날



소아암 환우 치료비 지원을 위해 매달 아름다운 나눔의 날 행사를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은 지난 4월 5일 두 번째 나눔의 날 행사를 펼쳤다. (사진)

무등산 문빈정사 나눔광장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상호, 주권기 씨등 나눔가수들의 공연과 증심사 신도회가 마련한 사찰전통 팝죽, 김치전 판매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음식바자회에는 동산대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 20여명이 진행봉사로 참여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생명나눔은 이날 모금된 수익금 400여만원을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정찬호(8세)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찬호는 골육종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비가 없어 암세포 제거수술과 항암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06)234-6602 (농협 617-01-146875 예금주 : 생명나눔) **광주=이준영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 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시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시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시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혀주세요

새 보금자리 건립기금 마련 연등 만들기 구슬땀

"이렇게 끝 쪽을 살살 비벼서 연꽃잎을 만드는 거야."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성묵, 직사각형의 분홍색 종이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지체장애 2급 회용(가명·25세)씨에게 성묵 스님이 직접 종이 끝 부분에 풀칠을 하고 비벼 연꽃잎을 만들어 보여준다.

회용씨도 따라하지만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지 스님이 보여준 것처럼 매끈한 모양새가 나오지를 않는다.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는 회용씨에게 성묵 스님은 "회용이가 만든 연꽃잎 하나하나가 불자들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용기를 준다.

경기도 이전에 자비복지타운을 건립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 소쩍새마을에서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연등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원장 성묵 스님과 직원들은 물론 소쩍새마을 식구들 30여명까지 등 만들기예 매달

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만든 등들로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 소쩍새마을을 장엄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이 만든 것처럼 예쁘게 만들지는 못해도 등을 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생각하면서 진심어린 손끝을 놀리는 소쩍새마을 식구들의 손가락은 분홍색 물이 너무 들어 젖어도 잘 지워지지 않을 정도다.

성묵 스님은 "올해는 자비복지타운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등 값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 우리 식구들이 일을 해서 모은 성금을 새집 짓는데 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등 만들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쩍새마을 식구들과 성묵 스님은 오늘도 앞으로 이사 갈 '자비복지타운'에 대한 희망을 키우며 연꽃을 하나 둘 피우고 있다. (02)928-7950



소쩍새마을에서는 지금 원장 성묵 스님과 직원·장애인 가족들이 모여 부처님 오신날에 장엄할 등등을 만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강진 기자

옛 이야기 나누다보니 우울증 사라졌어요

도봉서원복지관 동년배 집단 프로그램

도봉구 쌍문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현영 할머니(가명·71)는 수년간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우울증으로 고생했으나 요즘은 사람 대하는 것에 자인감이 붙었다. 4월 2일에는 인근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승범)에서 동년배 친구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 할머니가 부쩍 밝아진 것은 도봉서원복지관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년배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난 이후다. 이 프로그램은 뇌졸중 노인들, 독거노인들이 서로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봉서원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년배 프로그램은 매주 1회씩 10회간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는 회상요법과 원예 등의 집단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시행 후 정서적 친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동년배 프로그램을 끝낸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친목 모임을 만들어 월 1회 함께 건강상담을 받고 나들이를 가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02)3494-4755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따주기 한방봉사 '나눔' 팀



4월6일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부항을 뜨고있는 '나눔' 팀의 봉사 모습.

"부항 뜨고 침 맞으니 시원해"

"아이구, 거 시원하다!"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 6층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시원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들린다. 바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나눔' 팀(팀장 전용화)의 따주기 한방봉사 덕분이다.

4월 6일에도 4명의 나눔팀 봉사자들은 바쁘게 손을 놀리면서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졌다. 나눔팀의 한방봉사를 위해 복지관에서 피를 뽑는데 쓰는 침과 부항기, 그리고 찌름까지 구비해 왔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접촉식이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T침을 놓고 찌름을 뜨고 더 심한 통증 부위는 부항기로 피를 뽑아 어혈을 제거하는 나눔팀의 한방 봉사 과정 중에는 어느 것 하나 대중인 것이 없다. 그렇게 한방 치료를 받고 난 노인들의 입에서 '시원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은 아팠던 부위의 통증이 완화되어 느끼는 상쾌함 때문일 것이다.

여러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3년 전부터 한방봉사에 뜻을 두고 교육을 받은 나눔팀, 조일영(49) 보살은 "처음에 서로 침을 찌르면서 배우는데, 피를 보니 어찌나 무섭던지"라고 말하며 교육시간을 회상한다. 그래도 그렇게 배워왔더니 집안에서 식구들이 아플 때도 유용하게 써 왔다.

이제 피를 봐도 무섭지 않게 됐고,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 있는 봉사팀이 됐지만, 나눔팀에게는 딱 하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

"쑥뽀미나 부항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어 각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수요가 많은데도 한방 봉사팀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오래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지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금세 괜찮아지거든요."

나눔팀 전용화 보살은 자신들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노인들의 아픈 곳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봉사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한 노인의 발목에다 찌름을 뒀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
 먹을거리 부족합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을 위해 무료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생필품과 식료품을 나눠주는 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나눔팀 홍경일·이원숙 보살은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쌀, 고기, 김치 등의 먹을거리가 언제나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불자들에게 '나눔'을 호소했다. (02)989-4215-8

나눔의 손잡기 <등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 인터넷 홈페이지 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모아에너지산업 [주]

신비의 파동에너지 **별뿔별 보석염주**

별뿔별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우리가족 웰빙 필수품 **별뿔별 보석염주**

특히 받은 파동에너지, 이런 분께 특히 좋습니다

- 수능, 학력시험을 앞둔 자녀
- 승진시험을 준비중인 아배
- 성체관람, 환상과 중진
- 연애를 준비
- 어르신의 노화방지 및 치매예방
- 상상의 안정과 기력회복이 필요한 분
- * 에너지 발생카드 : 특수 재 3415호

과학으로 입증된 효과, 별뿔별의 놀라운 효과

- 영양제까지 보충 섭취와 +6 증가
- 일찍이전 방사능 99% = 100% 음이온 발생
- 수액전지 유효파 재가사는 90cm
- 소화장애 제거등의 식품을 알카리로 변화
- 피로회복, 기력 증진, 노화방지, 치매예방
- 어깨결림, 체모조각, 탈염, 요통 등의 통증 완화
- 혈액순환 촉진 및 혈압 강하

문의: 1588-6288
 www.moaenergy.com

전국 대리점 및 영업부 직원 모집
 대리점은 각 지역 선착순 마감하며 계약실당은 미리 예약하십시오.